

정립Letter

VOL.
03

2021. Sep

법무부 청렴알림 e

WWW.MOJ.GO.KR

MINISTRY OF JUSTICE

NEWS LETTER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

Issue 1

횡단보도라는 공존의 정의
법무심의관 정재민

Issue 2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일문일답 인터뷰
법무과장 정지은

횡단보도라는 공존의 정의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재민

주요약력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20. 11. ~)

전)

MN 알쓸법잡 출연
(’21. 4 ~ 7.)
방위사업청 특수합사업팀·
원가검증팀 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17 ~ ’20)
대구·의정부지방법원 판사
(’06 ~ ’17)

법무부의 배려와 지원 덕분에 지난 7월 tvN 『알쓸법잡』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법무부 입장을 많이 소개했는데 여러 사정상 일부만 방송에 나가서 아쉬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법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 공부를 시작한 후 지난 25년 동안 법 이야기를 법률전문가들하고만 나누다가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말하는 모든 순간 일반인을 상대로 쉽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마치 외국어로 회화를 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외국어 회화에도 더욱 힘써야겠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사례가 횡단보도였습니다. 저는 횡단보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치주의와 법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일상의 가장 가까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큰 버스나 10톤 트럭을 비롯한 모든 차들이 일제히 멈추어 섭니다. 그 모든 차들을 힘으로 다 멈추어 세우려면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큰 반작용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 어려운 것을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해냅니다. 그리고 나면 강자인 차들 앞을 약자인 보행자들이 유유히 평화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손도 잡으면서 건너갑니다. 그렇다고 횡단보도가 보행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로만 다닐 수 있도록 몰아넣음으로써 나머지 더 긴 시간과 더 넓은 공간에서는 자동차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될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가 되고, 차를 놓고 걸어 다닐 때는 보행자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무부의 모토인 ‘공존의 정의’를 이루는 지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자나 다수의 전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되, 약자나 소수도 숨을 쉬고 다닐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강자와 약자가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순환구조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미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가령 헌법 제37조는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다수의 뜻에 따르되, 법률이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더 커야 정당화되며, 그 경우에도 소수자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심의관으로서 각 부처들의 법안을 심의할 때 가장 자주 쓰는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제37조는 헌법에 깔린 횡단보도이지요. 헌법 원칙 이야기를 하면 딱딱하지만 횡단보도 이야기를 하면 훨씬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는 교정적 정의와 사회적 재화를 공평하게 나누는 배분적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판사일 때에 교정적 정의를 세우는 일을 했지만 법무심의관으로서 배분적 정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배분은 자유의 배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권력도 일종의 자유라고 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자유를 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유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유가 있으므로 각자가 키울 수 있는 자유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지만 자유의 크기가 작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조화의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다시 횡단보도로 돌아옵니다. 사회 곳곳의 차들과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공존의 정의를 위해서, 저희 법무심의관실은 오늘도 횡단보도를 잘 설계하는 일에 열중하겠습니다.

CONTENTS



청렴 소식



청렴 포커스



청렴 詩談



청렴퀴즈

청렴 소식

NEWS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수여식 개최

법무부는 2월 26일 정부과천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청렴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양한 부문에서 시민감사관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사패 증정에 이어 청렴시민감사관과의 면담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활동분야 확대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청렴시민감사관과 직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홈페이지에 청렴시민감사관 신고 창구 **THE 청렴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시민감사관 1명을 더 늘려 법무행정 각 분야별 6명의 전문가를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국민이 보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WS 행동강령 릴레이교육 '1단계 교육' 실시

법무부는 7월 28일, 8월 18일 2회에 걸쳐 소속기관장 및 청렴교육 기본강사 등 140여 명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릴레이교육' 1단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한세군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상 10가지 행위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대면교육 대신 실시간 화상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은 총 3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 교육 이수자가 각 기관 부서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2단계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교육 이수자가 각 부서에 3단계 교육을 실시하는 전파 교육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이 법무부 전 직원의 행동강령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NEWS 법무부 청렴 멤버스 제1기 선발 "같이하는 청렴, 가치 있는 청렴!"

법무부는 현장 직원들을 청렴시책 추진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청렴 정책의 다양성 및 현장성 제고하고자 청렴멤버스 제1기를 선발하였습니다.

1·2차 심사를 거쳐 총 56명의 지원자 중 최종 42명*을 선발하였으며, 직렬·직급·성별·연령을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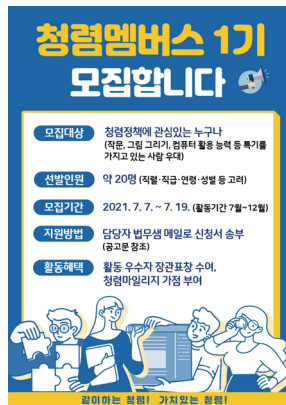
*본부 3명, 소속기관 39명(연수원 2명, 보호기관 14명, 교정기관 17명, 출입국기관 6명)

제1기 청렴멤버스의 활동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반부패·청렴정책 관련 아이디어 제안,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홍보 활동, '청렴알림e'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활동이 종료된 후 청렴멤버스 대원들의 활동 내역을 평가하여 우수 활동자 1명에게 장관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같이하는 청렴, 가치 있는 청렴!" 청렴멤버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청렴멤버스 1기 송지희 대원(전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과 조의진 대원(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기고문·삽화가 공감한 분들은 '청렴알림e' 제3호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해주세요!



NEWS 법무부 소속 기관장·부서장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법무부는 지난 6월 소속기관 부서장 이상 7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위험성 진단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 수준 진단을 위해 2016년 최초 실시한 후 매년 실시되었으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하여 설문체계 및 문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0년 피평가자(기관장, 부서장) 셀프진단 도입 등에 이어 2021년에는 부서장 진단 강화, 설문응답자 선정 방식 변경, 문항 신설(소속기관별 맞춤형 문항 및 인기투표 방지 문항) 등 한층 더 실효성있는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단은 최종 9월 종료될 예정이며, 3년간의 진단 결과를 평가 대상자별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렬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청렴 추진 일정표

8월

제1기 청렴멤버스 1차 회의 개최
20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계획 수립
2021년 상반기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 및
부패공직자 현황 점검

10월

행동강령 화면보호기 제작·배포
2021년 청렴워크숍 개최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2021년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9월

2021년 제1회 법무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 개최
2021년 제4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및 합동 워크숍 개최
2021년 법무부 청렴라이브(LIVE) 개최
제1기 법무부 특별시민감사관 위촉 및 1차 회의 실시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및 청렴주의보 발령
제1기 청렴멤버스 2차 회의 개최
2021년 청렴문예 공모전 개최
클린멘토링단 운영계획 수립·시행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배포

11월

2021년 청렴마일리지 결과 발표

12월

2021년 반부패주간 운영
2021년 청렴우수기관·공무원 포상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정책과제
이행 현황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7월)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심의(7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청렴^韓세상

법무부 청렴멤버스 1기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주사보 송지희

Created by Aldric Rodriguez from Noun Project



청렴 한 길



청렴의 힘



청렴 한방



청렴 단체



청렴의 물결



청렴 러브



청렴 한판



청렴 감각



청렴 조준



청렴 종주국



청렴 선순환



청렴한 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일문일답 인터뷰



법무부 법무과장 부장검사
정 지 은



‘법조계 전관특혜’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어 오래도록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지은 법무과장님을 만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Q 과장님께서 지난 2015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검찰청, 헌법재판소를 거쳐 최근 법무부 법무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과에 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법무과는 법무실의 주무부서로, 법무실의 인사·조직·예결산·국회대응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변호사법·공증인법·공익법무관법 등을 소관하며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Q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소관위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이하 ‘공직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특혜’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관특혜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사건의 수임부터 소송의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사·사법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Q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법률개정안과 관련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Q 전관특혜 근절 관련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시의 직급과 영향력 등에 따라,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최대 3년(종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되고, 수임한 사건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최대 3년(종전 2년) 동안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법조 윤리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가 신설됩니다. 그 외에도 법조브로커 퇴출,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등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Q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뢰인의 95.1%에 달하는 응답자가 ‘전관특혜가 매우 많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사회의 사법 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달해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근절되어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도 변호사 제도와 관련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리(五里)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발자취를 따라서

외별감만 많이 있어 마름 대신에
새금을 받던 주인도
제 소임을 다 버리고 몸만 사칠 뻔이로다.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치며
옷 벗어 무너질 담을 누가 고쳐 쓸 것인가
(중략)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中

여러분 ‘고공답주인가’라는 작품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작품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작품으로 임란 이후 국사(國事)를 돌보지 않고, 당파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한 작품입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은 조선시대 중기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다섯 차례 영의정을 지내며 당파 싸움보다 백성과 나라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자 했던 청백리 문인입니다. 그러나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두어 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에 살았으며,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광명시에 청빈과 애민으로 청백리에 녹선되었던 이원익 선생의 삶을 담은 <충현박물관>이 있다고 하여 직접 다녀와 보았습니다.



<충현박물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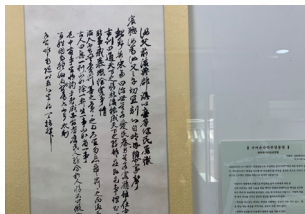


<전시실 충현관 전경>

도시의 소음에서 살짝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충현박물관은 오리 선생의 여러 작품과 유물을 전시해 놓은 ‘충현관’, 중가의 후손들이 살았던 ‘종택’,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 제사를 지내는 ‘오리영우’ 총 4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현관에서는 이원익 선생의 영정, 가족에게 쓴 글, 각종 전적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이원익 선생이 연풍현감으로 부임하는 손자에게 써준 당부의 글인 「서여소수악부연풍현」이라는 글에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목민관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유념해야 할 덕목을 정리한 것으로 오리 선생이 지방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 등의 짧은 글귀 속에서 오리선생이 청렴과 간명으로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여소수악부연풍현」과 그 해설>



<중가의 후손들이 살았던 종택>

다음으로 충현관에서 나와 관감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감당은 인조가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이원익의 청렴하고 간결한 생활 자세를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 하사한 집입니다.

이곳은 인조가 승지를 보내 이원익의 초가를 찾은 뒤 “재상이 된 지 40년이나 되었는데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니, 청렴하고 결백하며 가난에 만족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다. 내가 평생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의 공로와 덕행뿐이 아니다. 이 공의 청렴하고 간결함은 모든 관료가 스승으로 본받을 바이니, 어찌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겠는가?”라며 집을 지어주라 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이원익 선생은 이곳에서 4년간 기거하다가 서거하였다고 합니다.



<영우오리 전경>



<관감당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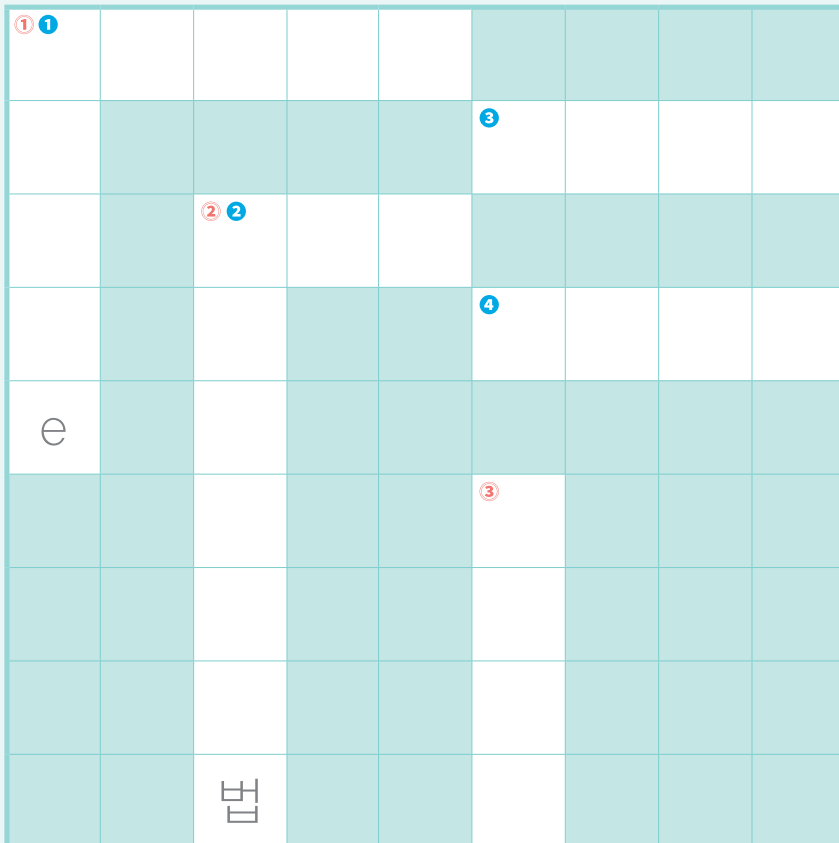
이외에도 안주목사로 부임했을 때에는 기민을 구호하기 위해 중곡을 청하여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1년에 3달이나 하던 병졸의 훈련근무를 1년에 2달로 줄여 부담을 줄이는 등 오리 이원익 선생에 대한 청렴 일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충현박물관은 오리선생의 업적과 청빈했던 삶의 모습을 잘 보존해 놓아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서울 근교에 나와 충현박물관을 방문하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한 삶과 애민정신을 몸소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청렴퀴즈

清廉 QUIZ

- 참 여 기 간** ~ 10. 22.(금)
참 여 대 상 청렴알림e 구독자 누구나(1인당 1회 참여)
참 여 방 법 응모 QR코드 스캔하여 정답 입력
정답자 발표 11. 5.(금) ※개별 문자 메시지 안내
정답자 상품 정답자 100명 추첨 후 커피교환권(2매) 증정



세로

- ①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렴정책 및 이슈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자 2020년 8월 청렴 소식지를 창간하였습니다. **청렴 소식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e)
- ② 2021년 5월 18일 공포(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③ 이것은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1년 3월 제정된 「○○○○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가로

- 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6년 제정된 **법률의 약칭**은 무엇일까요?
- ② 조선시대 중기 다섯 차례 영의정을 지내며 당파 싸움보다 백성과 나라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자 했던 **청백리 문인**으로, 「고공답주인가」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던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청렴알림e 3호 청렴時談의 주인공)
- ③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저술한 책으로 **목민관의 도리를 기술한 책의 제목**은?
- ④ 조선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부패한 관리를 징계하던 임시관직의 명칭**은? (힌트 : ○○○○ 박문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고문 또는 코너 신설 등 '법무부 청렴알림e'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02-2110-3275로 전화해주세요.

보내시는 곳 | 이메일(event3275@naver.com), 우편(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청렴알림e 2호

구독인증
이벤트 ('21.4.)
우수 구독평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이승용님
부산구치소구호 속
청렴이 아닌 생활 속
청렴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에 감사드립니다.허정일님
광주보호관찰소법무부의 청렴한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박종철님
부산교도소늘 우리 곁에서
청렴과 함께
해주시시오.신달수님
의정부보호관찰소청렴,
특별함이 아닌
기분을 위해
힘쓰고 알리는
청렴알림e 흥해라!이중석님
전주교도소큰 도약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에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박종고님
광주소녀원시작은 미약하나
훗날 모든 이의
보약이 되길
기원합니다.강종모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렴한 법 집행의
나팔수가 되시길조용일님
의정부교도소언젠가는 책자로
발행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하는
청렴 전도사가
되어 주세요!김태형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공무원이 신뢰받는
세상을 가는 데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정해정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깨달음을 통한
작은 실천이 모여
청렴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황태영님
대전소녀원